‘보물급’ 비지정 불화, 제 모습 되찾다

불교중앙博, 비지정문화재 보존처리 성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그간 제대로 보존되지 못했던 보물급 비지정문화재 불화 2점이 1년간 보존처리 작업을 통해 제 모습을 찾았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탄탄)은 4월 8일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에서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 및 예방적 관리사업’의 첫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존처리 사업은 멸실 위기에 처한 문화재 다량소장처 소장 중요 비지정문화재의 보존처리를 진행해 추가 훼손을 방지하고 가치를 제고하고자 2020년 처음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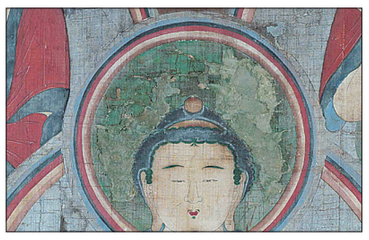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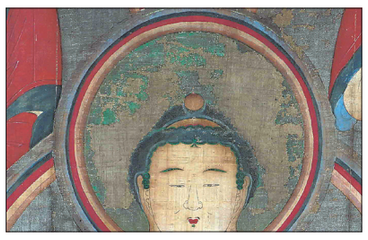
첫 사업 대상으로는 보물급 문화재로 평가받는 순천 송광사 ‘오십삼불도’와 하동 쌍계사 국사암 ‘제석천룡도’가 선정됐다. 송광사 ‘오십삼불도’는 1725년 호남 지역의 유명한 화승 의겸(義謙) 스님이 그렸다. 1970년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원래의 족자 형태에서 판넬 액자로 변형됐고, 합판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가 불화에 손상을 입히고 있었다. 화면에는 안료 박락, 갈라짐, 충해 등의 다양한 손상이 확인됐다.

쌍계사 국사암 ‘제석천룡도’는 18세기 쌍계사 중심으로 활동했던 화승 평삼(評三) 스님이 조성했다. 과거부터 국사암 외부에 위치한 전각에 봉안돼 불화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손상들을 받아왔다.

‘오십삼불도’·‘제석천룡도’
1년간 보존처리 작업 진행
초본 작성, 활용방안 모색

이들 불화의 보존처리는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에서 맡았다. 연구소 측은 두 불화의 기초조사와 문헌자료 수집을 진행해


보존 처리를 마친 송광사 ‘오십삼불도’의 모습.



송광사 ‘오십삼불도’ 보존처리 전 부분도(사진 왼쪽)와 후 부분도(사진 오른쪽).

문화재적 가치를 발굴하고, 과학적 조사를 통해 유물상태와 재질에 적합한 보존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각각 불화에 맞는 보존처리를 진행했으며, 초본도를 작성해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오십삼불도’는 불화에 맞는 마직물을 열화시키고 염색해 기존 채색에 맞춰 결손부를 메웠다. 그림 위쪽으로 겹쳐 올라간 조각이나 방향이 틀어진 조각의 위치를 찾아 조정했으며, 불화를 족자 형태로 수장고에 걸어 보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장기 보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비지정문화재 보존 첫 사례
가치 발굴해 보물 지정 추진
올해도 불화 2점 보존 진행

화면이 배접지에서 분리·박락될 정도로 손상이 심했던 ‘제석천룡도’는 모든 오염물질을 제거해 보존성을 높였다. 금속장식 부분에 안료를 쌓는 고봉기법을 통해 입체감을 표현했으나 두께가 있어 탈락 위험이 높아 레이온지와 풀가사리 풀로 고정시켰다. 또한 말아서 보관할 경우 손상이 이뤄질 수 있어 오동나무 장에 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보존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지정문화재 불화가 제대로 된 보존처리를 받은 건 유례가 없는 일로, 향후 중요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존처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탄탄 스님은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효율적인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축적된 자료를 활용한 비지정문화재의 지정문화재 승격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교중앙박물관은 올해에도 비지정문화재 보존처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도 화성 용주사 감로도, 안성 석남사 아미타회상도 등 보물급 비지정문화재 불화 2점에 대한 보존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대산 등불 ‘만화 희찬’ 조명 본격화

월정사·한국불교학회 공동
오는 4월16일 학술대회 열려
만화 스님 위상과 사상 고찰
월정사 복합 유산 등재 논의



한국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월정사를 중창하고 오대산의 수행가풍을 계승하는 데 힘썼던 만화 희찬 스님(1922~1983, 사진)의 수행과 사상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와 (사)한국불교학회(회장 고영섭)는 4월 16일 오후 1시부터 월정사 성보박물관 세미나실에서 만화 희찬 스님 탄신 100년 기념 춘계특별학술대회를 연다.

‘오대산을 지켜낸 만화 희찬’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되며 만화 희찬 스님에 대한 학술적 고찰을 비롯해 오대산과 월정사 일대를 유네스코 복합유산 등재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진다.

이날 학술대회 1부에서는 △‘만화 희찬의 생애 정리’(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 △‘만화의 적광전 중창과 상량문 분석’(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탄허의 수제자로서 만화의 위상과 그 제자들’(박부영 불교신문 부장)이 발표된다.

2부에서는 △‘신효의 월정사 수조(修造)와 사명(寺名)의 특수성 검토’(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 자현 스님) △‘오대산 중요 암자의 위치 및 동선과 시대에 따른 변화양상 검토’(권혁진 오대산 유산기 작업자) △‘오대산의 생태적 특징과 자연유산적 가치’(이민혁 오대산 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존과 계장) 등 오대산의 역사·생태·문화를 조명하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학술대회의 논평자로는 장성우 동국대 불교학과 외래교수,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김지연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 등이 참여한다.

한국불교학회는 “한암·보문·탄허 스님을 보좌한 만화 희찬 스님은 오대산의 전통을 계승하고 중창시킨 실질적인 버팀목”이라며 “한국불교의 내면을 단단히 하고 외연을 넓히기 위한 일환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여기의 동시대성을 발견하기 위해 대한시대 불교 지성들을 탐구하는 춘계특별학술대회를 마련했다. 불자와 학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1922년 출생한 만화 희찬 스님은 1938년 오대산 상원사로 탄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한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 밑에서 수행정진했다. 한국 전쟁 당시 피난을 가지 않고 한암 스님을 시봉했다. 국군에 의해 월정사가 전소되자 상원사, 월정사 주지를 맡아 탄허 스님을 모시고 중창불사에 매진했다.

제3·4·5·6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조계종 발전을 견인했다. 1981년 11월에는 월정사 회주로 추대됐다. 1983년 12월 11일 상원사에서 세수 64세, 법랍 45세로 원적에 들었다.

신성민 기자

진관사 괘불·괘불함 문화재 등록된다

문화재청 4월 5일 등록예고
“뛰어난 근대기 작품” 평가

서울 진관사 소장 괘불도와 괘불함이 문화재로 등록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서울 진관사 소장 괘불도 및 괘불함과 고흥 소록도 4.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유물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4월 5일 밝혔다.

서울 진관사 소장 괘불도 및 괘불함은 1935년 일섭(日燮, 1900~1975) 스님 등이 조성해 삼각산 삼각사에 봉안했던 것으로, 1960년대부터 서울 진관사에서 소장해오고 있다.


서울 은평구 진관사 괘불도.

해당 유물은 본존을 중심으로 좌우에 협시보살을 배치하고 그 뒤로 부처의 제자인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를 배치한 오존도(五尊圖) 형식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무형문화재 제126호 ‘진관사 수륙재’에서 사용하는 대형 불화다.

문화재청은 “존상의 얼굴과 신체, 옷주름 등에 빛을 인식한 명암법을 사용해 그림자를 표현하는 등 근대기의 새로운 표현 기법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수준 높은 작품”이라고 평가하며 “제작연도·제작자·시주자 등이 기록돼 문화재 등록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길 위의 인문학’ 동국대 6년 연속 선정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6년 연속 선정됐다”고 4월 2일 밝혔다.

대학 도서관으로는 유일하게 6년 연속 선정된 동국대는 올해 자유기획형을 비롯해 처음으로 공모한 자유학년제 연계형까지 2개 프로그램에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동국대 중앙도서관(관장 오병욱)은 ‘호모 루덴스(Homo Ludense), 필동(筆洞)의 역사와 놀다’를 주제로 역사문화시민연대(소장 정준영)와 함께 자유기획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자유학년제 연계형 프로그램으로는 ‘호모 레볼루티오(Homo Revolutio), 4차 산업혁명이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동구여자중학교와 덕수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버추얼 과학관 탐방 등 다양한 체험을 준비 중이다.

동국대 중앙도서관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위축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인 만큼, 안전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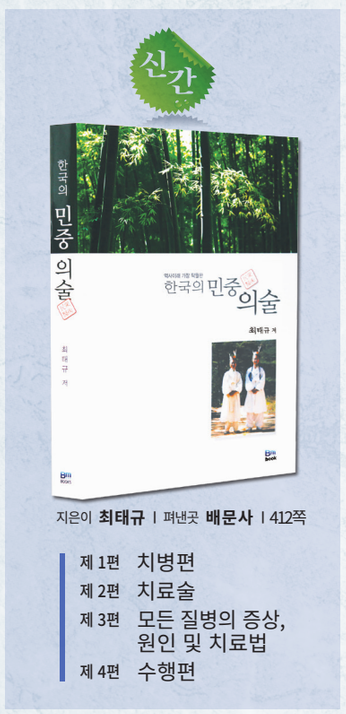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풍요와 복덕을 얻게하는 귀한 선물
천수경(千手經) 액자
인쇄물이 아니라 한 자 한 자 정성을 들여 모필로 써서 만든 것입니다.
붉은 비단에 금색원형으로 천수경을 적어 조형미와 더불어 품격까지 느껴져
주지스님 방이나 거실, 사무실 벽에 걸어놓기에 안성맞춤입니다.


· 작품크기 : 가로 45cm × 세로 45cm
· 바닥재질 : 비단(한지로 배접)
· 구입대상 : 스님, 신도님

천수경이란
천수경(千手經)은 관세음보살의 6번화신 중 하나인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을 신앙하는 경전이다. 천수다라니는 특히 티벳과, 네팔, 인도, 파키스탄은 물론 중국에 걸쳐 여러가지 이본(異本)들이 있는데 그 체제와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다라니의 내용도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송되고 있는 천수경은 가범달마(伽梵達摩)역의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을 모태로 한 것인데 우리말로 풀어쓰면 한량없는 손과 눈을 가지신 관세음보살님의 넓고 크고 걸림없는 대자비심을 간직한 큰 다라니경인데 천수다라니를 정성드려 모시거나 수지 독송하고 지키면 시방세계의 모든 불보살이 와서 증명하여 일체업장이 소멸되고 일체 악업과 중죄와 모든 장애를 여의케하며 일체의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증장시키고 이롭고 안락하게 하며 모든 병과 두려움을 없애주고 일체의 귀신이 범접치 못하게 하고 모든일을 성취케하며 구하는 바를 만족케하고 특히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수명이 장수하고 풍요와 복덕을 얻게한다고 한다. 이와같이 천수다라니에는 온갖 공덕이 들어있어 그 대비신력과 위신력의 영험은 한없이 높고 그 신묘함은 불가사의하다고 하여 신묘장구 대다라니라 한다.

문의 055-291-7263, 010-3845-2446 (금액협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00번길 37-15호 도덕정사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民衆醫術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